

천연 섬유-복합 방직 소재 나츨렛슈의 본격 전개

1. 서언

닛신보(日清紡) 텍스타일은 복합 방직 소재 시리즈 나츨렛슈를 2011년 여름용을 목표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패션 업계에서는 코튼 특유의 편안 장점 외에도 코튼만이 낼 수 없는 광택감과 드레이프성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감성을 가진 소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착용감이 뛰어나 피부 친화적인 천연 섬유를 고집한 나츨렛슈를 개발하였고 닛신보 품질을 유지하는 중국의 양산 체제도 확립했다.

2. 내용

나츨렛슈는 염색된 염색된 천연 섬유 면을 최적 조건으로 혼용한다. 이번에는 천연 섬유로 화이트 마, 견, 텐셀을, 면으로는 고급면으로 알려진 수피마를 선택했다.

또한 닛신보가 오랫동안 쌓아온 직편성물 가공의 노하우에 의해, 나츨렛슈 특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변형을 가진 섬유 시리즈로 확장한다. 춘하 제품부터 추동 제품까지,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계절,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널리 제안한다. 이미 여러 섬유 변환기에 대해 실로 환산하면 100톤에 가까운 선행 판매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나츨렛슈는 방직 기술 개발 거점인 후지 사업소에서 제품 디자인을 하고, 닛신보의 해외 생산 거점인 중국 뱃켄에서 양산한다. 생산 거점인 뱃켄에서는 상주하는 닛신보 기술자의 감독 아래, 중대형 생산을 반복하면서 품질을 안정시키고, 기술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 왔다. 또한 방직사 생산에 있어서 양질의 균질한 재료의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본 원료 메이커와 협력하고 원료 공급의 안정 루트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판매 내용은 닛신보세키 유한공사(상해)를 거점으로하여 일본으로 수출은 물론 중국 내 판매에도 주력하고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림 1> 텐셀 혼용 블라우스와 견 혼용 스커트



<그림 2> 텐셀 혼용 자켓과 블라우스

3. 전개 품종 및 판매

○ 소재

- 화이트 마 혼용 : 마는 천연 합성 섬유 중에서도 특히 열전도성이 뛰어나 체온을 외부로 전달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청량감이 뛰어난 직물을 제공하는 데 최적의 소재이다. 마를 원료 생산 단계에서 극한까지 협잡물을 제거하고, 흰색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화이트 마이다.

- 견 혼용 : 천연 섬유로 최고봉에 위치하는 견. 호화스러운 광택과 자연스러운 촉감, 흡방습성과 보온성이 뛰어난 고급 스러움과 함께 사람에게 친화적인 섬유이다.

- 텐셀 혼용 : 독특한 광택, 드레이프성,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 텐셀. 높은 감성을 지닌 섬유 전개가 가능하다.

○ 변수

- Ne 40 ~ Ne 100

○ 용도 및 판매 목표

- 캐주얼 의류를 중심으로 폭넓게 제안
- 섬유에서 첫째 100만m의 판매를 계획